

내 안의 록커를 깨우기: 광지수의 베드타임 스토리

고동연 (미술비평)

“내 왼쪽의 옆구리에는 아주 난폭하고 사악한 록커가 살고 있다…。 그는 불쑥 튀어나와 자동차를 날려버리고 여기저기 피를 튀긴다. 사람들은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른다. 그는 내가 상상하는 많은 파괴적인 것들을 대신 저지른다. 난장판을 만들고 나면 그는 금세 사라져버리는데 그러면 나는 왼쪽 옆구리를 톡톡 치며 그를 달래곤 한다.”¹⁾

광지수는 매우 작은 물건이나 버려진 것을 활용한다. 현대미술에서 폐품을 활용하는 일은 꽤 흔해졌지만, 굴껍질을 부분이 아닌 아예 캐릭터로 사용하는 일은 특이하다. <Skin Squad, Break the Encirclement!(껍질 군단, 포위망을 돌파하라!)>에서 굴껍질은 그녀의 작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굴껍질로 만들어진 캐릭터는 작가의 알터 이고(Alter-ego)이자 전시의 중요한 다른 축인 빌런을 무찌르는 주인공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 대결 구도는 또 다른 반전을 지닌다. 작가 스스로 내 안의 록커를 언급하고 있듯이 작가의 내면에는 또 다른 자아가 파리를 틀고 있다.

오단 옆차기 자세로 상대방을 물리 찌르는 작가는 원래는 내면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질량과 밀도를 낮추기로 다짐을 하였다. 이것은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완벽한 구를 탄생시키는 중력과 같은 힘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것이다. 내면에 밀도나 ‘덩어리’가 없는 것은 빌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파란색 줄무늬 반팔을 입은 빌런(Villain in a Blue Striped T-Shirt)>(2024)에서 범죄자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져 있으며 신체는 거의 속이 비어 보인다. 즉 자아나 빌런이나 잘 뜯어보면 매우 유사한 형태적 특징과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의 특성을 보여주는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내면이 비어 있거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자아의 상태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그녀의 내면에 또 다른 자아, 즉 난폭하고 사악한 록커가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번 전시에서 난폭한 록커는 요새 신문 지상을 장식했던 희대의 살인마나 사회 부적응자들이다. 따라서 작가의 내면에 사는 록커와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작가에게 인간의 이중적인 측면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베드타임 스토리가 이중성을 가지듯이 말이다.

베드타임 스토리

광지수의 《베드타임 스토리》는 일종의 복수전이다. 일차적으로 굴이 ‘얕’을 하면서 오단 옆차기를 하는 동작은 귀엽지만 나름 의미심장하다.

“첫째, 이들이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극적이고 역동적인 전투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었다. 알맹이가 없는 굴껍질들이 신체적 해방감과 가벼움을 느끼게 하면서 그들이 취하는 자세에서 일종의 기합 소리를 상상하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고집했다.”²⁾

작가에게 굴껍질의 공격적인 모습은 이제껏 귀엽고 아름다운 세상을 거의 강요받아온 어린이의 반격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을 언급한다. 개 중에는 수원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마주친 환락가의 모습이 있다. 어린아이에게 숨기고자 했지만 숨길 수 없었던 어른들의 어두운 세계를 작가는 기억한다.

원래 익숙하지 않으나 낯설다는 뜻의 ‘언캐니’를 유행시킨 프로이트의 “언캐니(Uncanny)”(1919)에서 프로이트가 주로 인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를 위한 베드타임 스토리이다. 프로이트가 인용하고 있는 호프만(E.T.A. Hoffmann)의 <샌드맨>은 잠을 자지 않는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눈에 모래를 뿌려 잠들게 하는 설화 속 존재이다. 원래 눈이 빠근하거나 아프면 샌드맨이 왔다 갔을 것이라는 밤에 들려주는 이야기로부터 유래해서 호프만의 19세기 소설은 샌드맨을 무서운 인물로 변형시킨다.

프로이트는 어릴 때 무의식에 남아 있는 두려운 기억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어렸을 때의 두려운 기억은 완전히 잊히거나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전의식 혹은 의식으로 진입하고자 작동하게 된다.³⁾ 이때 ‘비의도적인’ 외부 상황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억압된 무의식과 결합하여 언캐니의 감정이 야기된다. 즉 익숙하지만 낯설고, 새롭지만 어디에서인가 본 듯한 두려움의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베드타임 스토리는 전통적으로 두려움을 유발해서 어린아이가 말을 잘 듣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샌드맨>(1938)의 경우 또한 밤에 잠을 잘 자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샌드맨이 왔다 간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한다. 이때 눈과 같이 매우 일상적이고 중요한 신체의 부분을 아이들이 전혀 다른 객체로 인식하게 만들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했던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누군가가 알고 있으므로 눈이 떼어가는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베드타임 스토리는 복잡한 세상의 이면을 차단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린이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말을 잘 들으면 그깟 두려움은 별것이 아닌 것과 같이 아이를 달래지만 결국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당시의 기억이 남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베드타임 스토리》는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억압해 온 로커를 불러들이는데 사용된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야기하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써 어두운 삶의 모습을 억압해야 하는 것이 아닌 그러한 베드타임 스토리가 억압해온 이야기를 재할, 혹은 부활시키는 계기가 된다.

선한 자와 악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대결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가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사회적인 두려움이 가중된다. 선하게 보이는 자나 평범해 보이는 자가 전혀 평범하지 않을뿐더러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갖게 된다. 《베드타임 스토리》에서 두려운 점은 마찬가지로 무의식 속의 숨어있는 악마를 내가 영원히 처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영원히 극복할 것이라고 속단한 것이 착각이라고 걱정을 하게 된다.

작가는 누차 악인이 평범하고 실제로는 나악해 보일 수 있다고 단언한다. “전시장 구석구석에 쓰러져 있는 지푸라기 인간들이다. 이들은 머리가 없고 벽에 힘없이 기대어 쓰러져 있다.”⁴⁾ 실제로 “1988년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 범인 구속 당시 복장을 재현한 옷”의 경우 대부분 인상착의는 삭제되어 있다. 게다가 신체의 내부는 지푸라기로 채워져 있고 검거 당시의 모습이지만 대부분 극도로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손과 발이 묶이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그들은 누구를 공격할 사람처럼 얼핏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이 범죄자로 밝혀지게 되면 사회는 두려움에 싸인다. 각종 매체는 옆집의 누구든지 범죄자일 수도 있다고 떠들고는 한다. 흔히 악의 일상화된 것으로 호들갑을 떠다. 나아가서 평범해 보이는 범죄자가 출몰하게 되면서 모든 현대인이 어두운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예견했던 바와 같이 악의 일상화는 악을 억압해온 특정한 사회적 관습과 연관될 수도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동화나 교육과정에서 악을 억압하고 일탈로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아이들은 무의식에 억압된 욕망을 저장해놓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굴절되게 된다. 프로이트가 호프만의 소설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것도 유사한 연유이다. 아이들의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자신만의 상상력에 몰입할 수 있는 밤의 풍경을 어른들은 어떻게 두려움의 시간으로 둔갑시켜왔는가?

충분히 분노하자: 내가 살아가는 방법

이에 광지수는 소극적이지만 유의미한 복수를 감행한다. 내 안의 록커를 불러 들이는 방식이다. 그는 굴꺾쩍 정도의 밀도와 무게감을 지닌다. 그다지 파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 빌런으로 불리는 악당들처럼 속이 그다지 꽉차여 있지 않다.

그런데도 발차기를 날린다. 굴껍질은 말라 비틀어져서 날카로운 공격의 자세가 두드러진다. 내면이 비어있는 굴껍질 캐릭터의 상태는 악인의 상태를 닮아 있지만 모든 공격이 실은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할지도 모른다는 자명한 진실을 관객이 깨닫게 해준다.

대신 남을 해치느니 굴껍질이 취하고 있는 자세는 다분히 자기방어적이다. 적어도 타인을 자신의 두려움의 대상이나 표적으로 삼지는 않되 충분히 분노하고 억압된 욕망을 표출하려는 듯 보인다. 적어도 프로이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낮은 영역으로 밀어넣었던 억압된 욕망,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표출하려는 듯이 보인다. 충분히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광지수 세대의 또 다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1) 광지수, “작가 스테이트먼트,” 2024.

2) 앞 글.

3) Sigmund Freud, “The Uncanny” (1919) in *Uncanny*, London: Penguin Books, 2003, p. 124.

4) 광지수, “작가 스테이트먼트,” 2024.